

---

# 중소기업 대표단 중국 출장 결과 보고

---

2026. 4

**KBIZ** 중소기업중앙회

# 1

## 출장 개요

### □ 기본개요

- 출장기간 : 3. 29(일) ~ 31(화)
- 출 장 지 : 중국 베이징
- 참석대상 : 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
  - \* 실 무 : 김철우 국제통상실장, 이현석 과장, 조경욱 대리

### □ 주요일정

날 짜	주요 내용
3.29 (일)	[출국] 김포 - 베이징 15:00 - 16:10 (2h10m, OZ3355)
3.30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MOU</li><li>○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및 업종별 상회 간담</li></ul>
3.31 (화)	[귀국] 베이징 - 인천 10:40 - 13:50 (2h10m, OZ332)

##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MOU

- 일 시 : 3.30(월) 10:00
- 장 소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1층 회의실
- 체결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 MOU 주요내용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 양국 중소기업 경제, 무역 협력 확대
  -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
- 관련사진



## □ 중화전국공공업연합회 및 업종별 상회 간담

### ○ (한국측)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3	이한욱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4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 (중국측)

순번	성명	소속 및 직위
1	가오 원룽	공상연합회 주석
2	뤄 라이쥘	공상연합회 부주석
3	거 민	공상연합회 국제협력 국장
4	마 샤오팡	공상연합회 국제협력 부국장
5	셰 이	공상연합회 신에너지상회 집행회장
6	황 원보	공상연합회 신에너지상회 부회장
7	지아 궁치	공상연합회 자동차·오토바이부품상회 부회장
8	리 성한	공상연합회 상회발전센터 종합판공실 주임
9	황 잉	공상연합회 금은보석상회 사무총장
10	장 선진	공상연합회 제지공업상회 사무총장

○ 주요내용

- 중국 경제, 산업현황 및 주요 정책 방향 공유
- K뷰티, 푸드 및 태양광, 배터리 등 신에너지 분야 등 양국 협력 논의
- 중소기업 포럼 등 양 기관 및 중소기업계 교류 방안 논의

○ 관련사진



朝鮮日報

2026-03-31 (화) B03면

### 손잡은 韓·中 중기 단체... 세미나·포럼 등 교류 활성화

중기중앙회·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경제 협력 확대위한 업무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 경제 단체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한·중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경

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세미나·포럼 등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953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전국 3252개 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 개 상공회의소를 두고 있다.

이날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은 올 하반기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10월 중기중앙회가 제주도

에서 여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는 중국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해, 한국의 동종 업계와 만나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약 28조6500억원)로,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라며 "올해 의료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중국 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우정 기자

서울경제

2026-03-31 (화) A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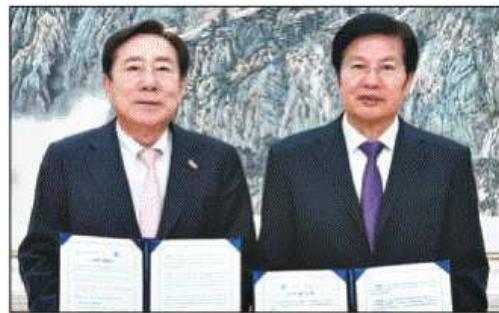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와 협약

경제·무역협력 확대 약속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 최대 경제단체와 협력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30일 중국 베이징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과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다.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 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를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30일 중국 베이징 업무협약 체결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류석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 중기중앙회, 중국 공상업연합회와 협약

### 하반기 中 청도 공동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모색한다.

중기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을 비롯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가오원룽 주석 △뤄 라이쥘 부주석 및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

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올해는 의료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OU 후 간담에서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은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중국 청도에서 한중 중소기업 포럼 개최를 제안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

또한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도 중국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해 업종별 매칭을 추진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hnkim@

## 알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빌딩 2층에서 민변 창립회원인 박용일 변호사의 자서전 '변호사 박용일의 인생이력서' 북토크를 한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30일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등 교류 활성화에 협력한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7일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6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공 포상식'에서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사업 참여기업 (주)수호천사가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통한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과 조직문화 변화 사례를 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 중기중앙회, 중화전국공상업聯과 MOU “中 진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의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연계 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

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의료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이 함께했으며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서는 가오원룡 주석, 뤼 라이진 부주석을 포함한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와 한중 협력 ‘맞손’

### 김기문 “中, 위축된 내수시장 보완책 전시회 참가 등 시장 진출 적극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최대 경제단체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한·중 중소기업 간 교류 확대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서는 가오원룽 주석과 뤼 라이쥘 부주석,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 3252개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약 5만4000여 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 간 경제·무역 협력 확대 △세미나 및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 규모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며 “위축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 중기중앙회 제공

내수시장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와 뷰티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가오원룽 주석은 올 하반기 중국 청도에서 한·중 중소기업 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했으며, 김 회장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 한-중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맞손

## 중기중앙회-공상업연 협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주석 가오원룡)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을 비롯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가오원룡 주석 △뤄 라이젠 부주석 및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다.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

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한-중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와 경협 확대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 中 전시회·포럼 교류 활성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최대 경제단체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확대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측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서는 가오원룡 주석과 뤼 라이젠 부주석을 비롯해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 중국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 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 간 경제·무역 협력 확대 △세미나 및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가오원룡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올해는 의료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오원룡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은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중국 청도에서 한중 중소기업 포럼 개최

를 제안했고, 김기문 회장도 공동 포럼 개최는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적극 공감을 표했다. 또 10월 제주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도 중국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해 업종별 매칭을 추진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 중기중앙회·중화공상업연합회 경제 협력

한중 中企단체, 교류 확대키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한중(韓中) 중소기업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 개의 산하·연계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은 올해 하반기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중소기업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공동 포럼 개최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중국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해 업종별 매칭을 추진하는 등 양국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세호 기자



중기중앙회, 中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경제 협력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국 최대 경제단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양국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중기중앙회, 中 ‘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

### “중소기업 中 진출 적극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한·중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과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을 비롯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가오원룽 주석, 뤼 라이진 부주석 및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다.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 4000여 개의 산하·연계상공회의소를 두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세미나와 포럼 등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의료기기와 뷰티 등 약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상외교를 계기로 나타난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이 민간 차원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양국 중소기업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이원 기자 iwonsoe096@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와 ‘맞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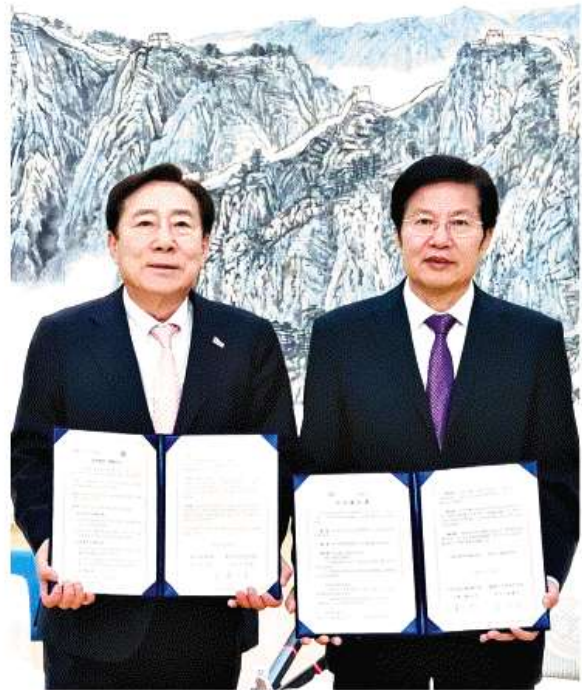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MOU  
국내 중기 200곳 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권혁홍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가오원룽 주석·뤄 라이진 부주석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개의 산하·연계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올해는 의료기기·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30일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이어 “지난 1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을 민간차원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한·중 중소기업계 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은 기자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와 교류 확대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맞손'

중기중앙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서 가오원룽 주석, 튀 라이젠 부주석 및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이 주도해 설립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위해 협력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올해는 의료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와 ‘협력 확대’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한·중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과 세미나·포럼 등의 교류를 확대한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중국 최대 경

제단체로 전국 3252개 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며 “올해는 의료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 아주경제

## 중기중앙회·中 전국공상연 업무협약

1953년 세워진 中 최대 경제단체  
중소기업 우수 사례 공유 등 협력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공상연은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세워진 중국 최대 경제단체다. 전국에 3252개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연계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을 비롯해 전국공상연 가오원룽

주석·뤄라이쥘 부주석과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이 일환으로 중기중앙회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중국 측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오원룽 주석이 제안한 올해 하반기 한중 중소기업 포럼 개최에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김기문 회장은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라며 “지난 1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을 민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양국 중소기업계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hmcho@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중소기업뉴스  
830만 중소기업계 1등 신문

중소기업뉴스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국회 비주일뉴스

홈 > 뉴스 > 종합

## 중기중앙회, 중국 최대 경제단체 '공상연합회'와 MOU

유병호 기자 | 입력 2026.04.06 10:28 | 댓글 0

한중 간 민간경협 中企가 주도  
정보공유 범위, 정책까지 확대  
中시장 中企 진출 새 물꼬 기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최대 경제단체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을 나누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대표 경제단체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이하 공상연합회)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중소기업계가 주도하는 한중 민간경제 교류 촉진을 위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 공상연합회 본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측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중 수석부회장, 이한욱 강동한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공상연합회 측에서는 가오원룽 주석과 뤼 라이린 부주석,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공상연합회는 1953년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 3252개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 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회는 스스로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인민조직이자 민간경제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로 규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뉴스 중기중앙회, 중국 최대 경제단체 '공상연합회'와 MOU

양 기관의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기중앙회는 2014년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한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과거보다 협력 범위와 실행 방식이 한층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양 기관간 정보 공유의 범위가 경제·무역 투자 환경에서 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됐고, 기타협력 부문에서도 양국 중소기업 발전의 목적을 명시했다. 또한 협약 이행 및 해석 관련해서 실무 협의 기반의 이행 방식이 포함되면서 협력의 실행력과 체계성이 강화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며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의료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가오원룽 주석은 올해 하반기에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을 중국 칭다오로 초청해 한중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도 이번 협약의 후속 조치로 공동 포럼 개최를 추진해 나가자는 중국 측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중국 측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해 업종별 매칭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업 · 중기HT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 모색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쟁력 제고 사례 공유·경제-무역 협력 확대

류석 기사

입력 2026-03-30 18:00 수정 2026-03-30 13:44

지면 12면



▲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기요우롱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시미 30일 중서 베이징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 최대 경제단체와 협력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30일 중국 베이징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권영훈 수석부회장, 이한욱 강동원 부회장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기요우롱 주석, 쉐 리아오 부주석 및 중국 임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다.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초직과 5만 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중국 대상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올해는 의도하기, 유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사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을 민간차원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한-중 중소기업계 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중기중앙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양국 中企 발전 위해 협력"

신아름 기자

2026-03-30 15:16:47

가 < & #9744;



[왼쪽부터]김기문 중앙회장, 가오원봉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의 양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권혁용 수석부회장, 미현욱-강동한 부회장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에서는 가오원봉 주석, 웨이 라이현 부주석 및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 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 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89억 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올해는 의류기기,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U 체결 후 이어진 간담에서 가오원봉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은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중국 칭도에서 한중 중소기업 포럼 개최를 제안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동 포럼 개최는 양국 중소기업의 상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적극 공감을 표했다.

또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도 중국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해 업종별 매칭을 추진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중 中企협력 활성화 나선다... 중기중앙회·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업무협약

양세호 기자

일제 : 2026.03.30 14:10

하반기 中 청도 공동포럼 개최  
제주 리더스포럼 교류 등 합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좌)과 양세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한중(韓中) 중소기업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로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 및 연계 상공회의소(2022년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각종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가오윈중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은 올해 하반기에 중국 청도에서 한중 중소기업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공동 포럼 개최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엔 중국 중소기업 임종현 임회장들이 참석해 임종현 매칭을 추진하는 등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사임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중 수석부회장, 이한욱·김동한 부회장을 비롯해 가오윈중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 뤼 라이젠 부주석과 중국 임종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중기중앙회, 中 전국공상연과 업무협약... "한중 中企 협력 강화"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입력 : 2026-03-30 01:54 | 수정 : 2026-03-30 01:5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가오윈룽 중화전국공상연합회 주석이 3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중화전국공상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공상연은 1953년에 공산당 주도로 세워진 중국 최대 경제단체다. 전국에 3252개 공상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개의 산하·연계 상공회의소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을 비롯해 전국공상연 가오윈룽 주석·뤄라이런 부주석과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각종 세미나·포럼 등 교류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이 일환으로 중기중앙회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중국 측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오윈룽 주석이 제안한 올해 하반기 한중 중소기업 포럼 개최에도 힘을 합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국내 내수시장 위축을 보완할 중요한 대안"이라며 "지난 1월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을 인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양국 중소기업계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中 최대 경제단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입력 2026-03-30 11:00 | 수정 2026-03-30 13:59

### 한중 중소기업 경제협력 활성화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가오원룽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주석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와 한중 중소기업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이한욱·강동한 부회장을 비롯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가오원룽 주석 △취 리아친 부주석 및 중국 업종별 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1953년 설립된 중국 최대 경제단체다. 전국에 3252개의 공상업연합회 조직과 5만4000여 개의 산하·연계 상공회의소를 두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공유, 양국 중소기업의 경제·무역 협력 확대, 세미나와 포럼 등 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189억달러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며 "의료기기와 뷰티 등 약 200개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정상외교를 계기로 나타난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이 민간 차원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양국 중소기업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